

성경 역본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아니시아 텔 코로*

1. 들어가는 말

“역본이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을까?” 흔히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서를 번역할 때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톨릭판 성서 또는 개신교판 성서라고 해야 할 가톨릭교회 성서, 개신교회 성서라는 이름이 이러한 생각을 더더욱 부채질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이 글의 목적이다.

신국제역(NIV)은 만들어 내는데 96억원의 돈이 들었다고 알고 있다. 물론 편집인들까지 포함된 숫자이겠지만 115명이 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영어역본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제임스왕역(KJV)은 50명, 새영어성경(NEB)은 46명, 새미국성경(NAB)은 55명, 새제임스왕역(NKJ)은 119명이 각각 번역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보면 영어성경 하나를 펴내는데 얼마나 막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역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성서역본을 논할 때에는 대개 역본들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점은 번역진이나 출판사가 어떤 특징을 목표로 각 역본을 펴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여러 영어성서가 출판되는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우선 성서의 첫 번역인 칠십인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역본들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칠십인역

* 아시아태평양지역 번역 컨설턴트.

2.1.역사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글이 있다. 언제 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 문헌을 읽어 보면 필라델피아의 프톨레미 제2세(기원전 285-246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헌을 모으고 싶었다. 그의 개인 사서인 팔레룸의 디메트리우스는 히브리성서도 그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한다고 귀뜸했다. 그러자 그 왕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사제 엘르아자르에게 사절을 보냈다. 물론 금과 보석 같은 선물은 물론 왕 자신이 쓴 찬사까지 함께 보낸 것이다. 왕이 요청한 것은 히브리성서 한 권과 함께 그 성서를 번역할 학자들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엘르아자르도 이 제안을 좋게 생각하여 열두 지파에서 각 여섯 명의 원로를 뽑았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 규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72명의 번역자들은 어느 도시의 항구 부근에 있는 조용한 집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이야기의 이 부분부터 판본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아무튼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읽어보면 번역자들은 번역을 끝내고 번역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편지의 필로 판을 읽어보면 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번역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였다고 한다. 두 판본 모두 번역자들이 정확하게 72일 동안 번역했다고 말한다.

2.2.번역 동기

이 편지를 분석한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편지를 쓴 이는 유대인으로 히브리성서가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야기를 꾸몄다고 말한다. 곧 이방 왕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스어로 번역할 만큼 히브리성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Metzger 2001:15).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이 번역이 나오게 된 것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가 예배용과 교육용으로 이 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지중해 연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리스어를 일상어로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의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공격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문헌 운동을 벌인 것을 말하려 한 것이 그 동기라고 한다. 또한 다른 개정본보다 칠십인역이 더 정통성을 지닌 그리스어역이라고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ABD 5:1096).

2.3.번역 저본

저본은 한 번역의 생명이다. 저본 문제는 칠십인역 연구의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현대 이 분야 연구의 주류를 대표하는 뿔 드 라가르드(ABD 5:1097)와 괴팅엔 학파는 주장하기를 모든 사본은 본디 한 본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와는 다르게 폴 칼레(ABD 5:1096-97)는 주장하기를 한 개의 원본문은 있는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공동체가 필요로 해서 내놓은 여러 본문이 본디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 칠십인역에 들어 있는 각 책의 순서는 히브리어 성서의 순서와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욥기의 경우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성서보다 약 1/6이 짧다. 예레미야서의 경우도 칠십인역이 약 1/8이 짧다. 상황이 이러한테 칠십인역의 저본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분명한 것은 레닌그라드 코텍스에 들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과는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수백 년간 학자들은 이 문제와 씨름할 것이다.

2.4.접근

첫 번역인 칠십인역조차도 두 방식의 번역을 보인다. 욥, 잠언,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의 경우 “자유로운” 번역인 반면, 사사기, 시편, 전도서, 애가, 에스라-느헤미야, 역대지는 문자적인 번역이다(Metzger 2001:17). 사 6:1은 히브리어로는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칠십인역에는 “성전은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저본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칠십인역 역자의 책상에 펼쳐져 있던 사본에 “그의 영광이 가득 찬”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메츠거(Metzger 2001:16)에 따르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은 지웠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일도 없고 사람이 볼 수도 없으며 손도 없으시다는 것 등을 말한다.

2.5.모델이 없는 첫 번역

칠십인역을 내놓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처음 오경을 번역하면서 용어를 만들어 내야 했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은 그리스어로 옮긴 첫 번역일 뿐만 아니라, 일반 번역 가운데에서도 처음 번역이다. 번역자들이 사전이나 용어록을 사용했는지 그 증거가 없다. 번역자들은 어떤 낱말의 뜻을 결정할 때 문맥과 밑말에 기댄다. 이 당시 어떤 주석을 참조했는지도 잘 알 수 없다. 다른 모델이 있어서 비교해 보았는지 또한 알 수 없다.

2.6. “본문을 깨끗이 하기”

예로부터 사본은 손으로 베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사본들이라 해도 서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본문이 믿을 만 하지 못하다 하여 오리겐과 같은 사람은 육란(六欄)성서라 하여 요즘의 대조성서와 같은 것을 펴내면서 본문을 “깨끗이 하고자” 했다.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 같은 사람들도 역본을 내면서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다.

칠십인역의 영향이 하도 커서, 아예 칠십인역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번역을 내기도 하였다. 옛 라틴어, 콥트어, 고트어, 아르메니아어, 조지아어, 이디오피아어, 시리아어 등의 번역을 말한다. 바티칸 사본 같은 사본은 가장 오래 된 성경이 모두 포함된 사본으로 기원후 4세기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콥트어 사본과 옛 라틴어 사본은 그 보다 더 이른 기원후 2세기와 3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통 옛 역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본들은 칠십인역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칠십인역을 가장 권위 있는 구약본문으로 받아들인다.

칠십인역에 기대어 나온 시리아어역과 라틴어역 또한 아주 중요한데, 이는 이후에 나오는 여러 역본의大本이기 때문이다. 라틴어는 서부 로마 제국의 주요 언어였지만, 제국의 동쪽은 그리스어에 밀려 있었다. 4세기 말 즈음에는 수없이 많은 라틴어 사본이 출현한다. 어거스틴은 기록하기를, 신약의 그리스어 사본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숙한 어떤 사람도 번역을 내놓으려 했다고 한다.

번역이 수없이 많이 나오자 다마스스 교황은 383년에 당시 최고의 그리스도교 학자였던 제롬에게 믿을 만한 라틴어역을 내놓으라고 명하였다. 제롬은 다른 번역자들과는 달리 구약을 번역하려고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을 읽었다. 제롬은 히브리어 본문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 면에서 그는 수세기 후에 등장하여 외경과 정경을 구분하였던 개혁가들의 선구자이다.

불가타역이 나오자 많은 이들이 혹평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하였다.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저본을 칠십인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불가타역은 서 유럽에서 약 1000년 동안 공인본문으로 사용되었다. 개신교회 교인들과 로마 가톨릭교회 교인들은 사실 제롬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원, 거듭남, 칭의, 성화, 녹임, 화해, 영감, 성례전 등이 그 예이다.

이 번역본에서 새로운 번역이 여럿 생겨났다. 라틴어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개혁 이전에 여러 말로 된 성경을 내놓는다. 위클리프역(1382년), 독일어역

(1466년), 이탈리아어역(1471), 카탈로니아어역(1478년), 체코어역(1488년), 프랑
스어역(1530년) 등이다.

3. 영어역본들 - 제임스왕역 이전

3.1. 성경은 읽어야

성경 전체가 처음으로 영어로 나온 것은 뛰어난 옥스퍼드 신학자 존 위클리프(1330-84년)의 힘이 컸다. 위클리프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영국의 종교와 정치 개혁에 관심을 기울였다. 결국 그의 적들은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여 처형하였다.

그가 실제로 번역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의 영향으로 번역이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의 동료들이 1382년과 1388년에 각각 역본을 내놓았다. 저본은 불가타어였다. 처음 것은 라틴어를 일대일 대응하여 문자적으로 옮겼다는 평을 받는다. 둘째 것은 좀 자유로운 면을 보이는데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이다. 저본을 따라 위클리프역에는 외경이 들어 있다.

1415년 위클리프역은 불태워지고, 1428년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내어 불태운 뒤 그 재를 강에 뿌렸다.

3.2. 인쇄하던 시기

15세기에 이동식 인쇄기가 발명되어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처음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은 1488년에 나왔고, 처음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1516년에 나왔다.

옥스퍼드에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한 윌리엄 틴데일은 원문에서 옮겨 더 나은 영어성경을 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영국에서 반대에 부딪혀 독일로 건너갔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신약과 오경 그리고 구약의 다른 책을 펴냈다(1526년). 그는 이단으로 재판을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화형에 처했다. 이 무렵 영국의 상황은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틴데일역은 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채 떠돌아다녔으며 공공연하게 읽혔다. 틴데일역은 자유스러운 번역으로 대담한 표현과 관용어가 많이 사용된 역본이다.¹⁾

1)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는 행운아였

다음은 틴데일역 이후에 나온 영어역으로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본다.

*카버데일역(1535년) -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온 영어 성경전서이다.

- 외경의 책들은 따로 묶었다.
- 시편 23편의 특징적인 표현은 이렇다.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Thou enoyntest my heade with oyle)

“죽음 그늘 골짜기”(the valley of the shadowe of death)

*마태 성경(1537년) - 틴데일의 친구인 존 라저스가 옮겼다고 하는 역본이다.

- 라저스는 틴데일역의 미출판본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 “므낏세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테이버너 성경(1539년) - 카버데일역이나 마태 성경과 많이 다른 외경 번역이 들어 있다.

*큰 성경(1539년) - 책의 크기가 “위낙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 최초의 교회 “공인” 역이다.
- 에라스무스가 매긴 각 책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루터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묵시록으로 매긴 순서를 따른 성경이다. 1539년 이후에 나온 주요 영어역은 모두 이 순서를 따른다.

*제네바 성경(1560년) - 신약을 상세히 개정한 것으로, 칼빈주의의 교리적인 주가 붙어 있다.²⁾

- 절 수가 붙어 있는 첫 영어성경이다.
- 난외주, 지도, 도표, 각 장의 내용 요약이 포함되어 있다.
- 여러 면에서 눈에 띄게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두루 읽혔다.
- 셰익스피어 성경, 청교도 필그림 성경, 제임스왕 성경이라고도 부른다.

다”(...the Lorde was with Joseph, and he was a luckie felowe)(창 39:2). “홀륭한 파라오의 지휘관들은 홍해 속으로 빠져 익사하였다”(Pharoah’s jolly captains are drowned in the Red Sea)(출 15:4).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God introduced himself] the Lord thy surgeon)(출 15:26).

2) 제임스 왕이 1604년에 새로운 번역을 내놓자는 의견을 따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난외주에 들어 있는 설교를 그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 성경(1568년)

- 제네바 성경보다 더 널리 읽혔고 또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제네바 성경을 위시한 다른 역본을 대치하려고 내놓은 성경이다.
- 개정자들이 모두 감독이다.
- 큰 성경을 대본으로 사용하였다.
- 개정한 부분에 역자들의 이니셜을 붙여 신뢰성을 더하였다.
- 두 번째 공인 영어역으로 교회에서 큰 성경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라임스-듀에이 성경(1582년)

- 라틴어 불가타역을 대본으로 사용하였다.
- 매우 문자적인 번역이다.
- 전문 용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마 6:11의 “초존재적 빵”(supersubstantial bread)이나 롬 2:25의 “법에서 발뻠하는 자들”(prevaricator of the law)이란 표현이 그 예이다.

3.3. 요약 - 제임스왕역 이전

인쇄기가 발명된 뒤부터 역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0년 뒤에는 8개의 영어역본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특권을 지니고 읽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존 위클리프가 이렇게 주장한 이후로 새로운 역본이 여러 동기로 탄생한다. 윌리엄 틴데일 이후로 원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여러 영어역본의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뒤따라 출판된 역본들은 나름대로 독자들이 서로 비교하여 읽을 수 있을 만큼 여러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카버테일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특징을 지닌 성경전서 인쇄본이다. 마태 성경을 번역한 존 로저스는 미출판 틴데일역을 사용하여 번역하였으며 외경은 달리 번역하였다. 큰 성경은 시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루터가 매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에라스무스의 순서를 따라 신약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유다서와 묵시록 순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제네바 성경은 칼빈주의 교리를 담고 있는 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다. 또한 절수를 붙이고, 난외주와 지도, 목록, 각 장의 요약이 들어 있는 성경으로 유명하다. 감독 성경은 개정한 부분마다 역자들의 이니셜을 붙여놓아 신뢰성을 높인 성경이다. 제네바 성경처럼 이 성경 역시 많은 양의 주를 달았다. 라임스-듀아이 역은 개혁자들의 작업, 특별히 제네바 성경에 거슬러 나온 역본으로 저본으로는 라틴어

불가타역을 사용하였다.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어록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4. 제임스왕역과 그 이후 역본들

4.1. 제임스왕역(KJV, 1611년)

영국의 왕 제임스 제1세는 역본이 여럿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여 감독들과 퓨리탄 목회자들을 불러 모았다. 토의는 주로 당시 여러 성경이 단점이 많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번역이 나올 것을 허락한 사람은 바로 제임스 왕이었다. 왕의 열렬한 지원 아래 일년 안에 50명의 학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역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감독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보다 나은 역본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다른 영어역본들도 참조하였다. 오래도록 교회에서 사용해온 용어들은 그냥 두기로 하였다. 다만 “회중”(congregation)이란 말을 “교회”(church)란 말로 바꾸기로 하였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 말고는 주를 달지 않기로 하였다.

제임스 왕이 새로운 역본을 내놓자고 한 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그 자신이 성경공부에 열심이었고 사용될 역본이 진일보되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번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개정본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곧 큰 성경의 개정본인 감독 성경을 다시 개정한 것이다.

제임스왕역이 이전의 역본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은데 그것은 고유명사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레미야를 때로는 예레미야스(Jeremias)나 예레미(Jeremy)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유다스(Judas)라고 유다(Jude)를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고유명사가 아닌 다른 낱말의 경우 어떤 문맥에서는 그 문맥에 알맞게 고치기도 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였다(Rhodes 1997:83). 하지만 용기의 여러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흠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시편의 시어는 흐름을 잘 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읽어온 이 제임스왕역은 1861년과 1932년에 각각 철자를 고친 개정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제임스왕역은 왕의 재가로 번역되어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한 역본이다. 하지만 교회의 재가나 법적인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정역”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성경이나 감독성경이 교회

의 재가를 받은 것과는 조금 다르다.

새로운 번역은, 일반적으로 금방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임스왕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평적인 평가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영어성경의 역사에서 비추어 볼 때 제임스왕역은 오랜 시대를 풍미하였다. 그 시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격변기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유는 그 역본의 완결성 때문이다. 1611년 판은 그 시대의 학자들이 이해한 만큼 성서의 원문을 적절하게 옮긴 번역이다. 역본의 문체는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또 품위 있게 다가갔다.

4.2. 새 제임스왕역(NKJV, 1979년)³⁾

1611년판 제임스왕역의 언어를 주로 현대화하려고 개정하였다. “119명의 학자들과 편집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한 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어 카이나 히브리어 바브를 흔히 연결사 “그리고”로 옮기는데, 이 개정본에서는 문맥에 따라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등의 부사나 접속사로 옮겼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새 제임스왕역의 말은 엘리자베드 스타일을 따랐다. 이보다 더 문체인 것은 공인본문(the Textus Receptus)을 저본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곧 더 좋은 다른 사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같은 전통 내에서 성서역본을 내놓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제임스왕역의 경우, 언어를 현대화한다는 것도 이러한 전통, 곧 신학적인 전통에 기인한다.

4.3. 제임스왕역 이후

1611년판 제임스왕역은 한 세기 동안 사용된 뒤에도 여전히 이 역본과 다름 다른 역본들이 등장한다. 에드워드 하우드의 신약(1768년), 찰스 톰슨 성경(1808년), 노아 웹스터 성경(1833년)이 그들이다. 하우드는 제임스왕역의 문체가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하였다. 톰슨과 웹스터는 제임스왕역이 너무 고어체라고 생각하였다. 줄리아 스미드가 옮긴 영어성경(1876년)이 나오기도 하였다. 줄리아는 가정 문제 때문에 벌어진 법정 논쟁에서 여성의 지적 능력을 증명하고자 한 인물이다.

4.4. 제임스왕역의 여러 개정판

3) 이 글에서 성경 개정판을 언급할 때마다 두 역본을 항상 비교를 할 것이다.

제임스왕역이 나온 뒤 몇 년 후에 더 나은 양질의 그리스어 본문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것이 알렉산드리아 코덱스(Codex Alexandrinus, 기원후 5세기)로, 1627년 콘스탄티노플의 원로가 영국의 왕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다. 그 이후에는 1830년에 콘스탄틴 티센돌프가 발견한 시나이(Sinaiticus) 코덱스, 그리고 바티칸(Vaticanus) 코덱스가 등장한다. 둘 다 4세기 경의 사본들이다. 이러한 발견으로 본문비평학계에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 가능한 한 오류나 첨가가 없는 그리스어 원문을 복원하려는 때문이다. 새로 발견된 사본들은 제임스왕역이 저본으로 삼았던 훨씬 후대의 12 사본보다 얼마나 더 양질이나 하는 점이 밝혀졌다. 이후로 1881년판 웨스트코트-호르트(Westcott-Hort) 그리스어 본문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19세기 중반 그리스어 본문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제임스왕역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결국 영국에서 개정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감독 성경이 제임스왕역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1611년판 제임스왕역이 개정작업의 출발점이었다. 될 수 있으면 조금만 고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개정에 참여한 이들의 2/3의 찬성투표로 바꾸는 일을 수행한다. 나중에는 미국인들도 이 개정작업에 참여한다. 영국인들이 제안을 하면 미국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다시 돌려보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위원회의 번역이 다른 경우 그 다른 점을 영어 개역의 서문에 실든지 아니면 처음 14년 동안 개정본의 부록으로 실기로 하였다.

영어개역(RV)은 1885년에 나왔다. 이 해에 영국위원회는 해산되었다. 하지만 미국위원회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14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1901년에 미국표준역(ASV)이 나왔다. 가장 현저하게 눈이 띄는 점은 히브리어 성경의 하나님 이름 네 글자를 주님이나 하나님 대신 여호와(Jehovah)로 고친 것이다. 이 밖에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Holy Ghost”를 “Holy Spirit”으로 바꾸었다. “무덤”(grave)이나 “구덩이”(pit) 또는 “지옥”(Hell)을 “스올”(Sheol)로 바꾸었다. 복음서의 제목에 “성”(saint)이라는 말을 뺐고, 히브리서의 제목에서 “사도 바울”이란 말을 뺐다. 미국표준역의 영어문체가 영어개역의 문자적인 문체보다 진일 보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4.5. 형식적 일치 번역에 대한 반응

제임스왕역 그리고 뒤이어 나온 영어개역과 미국표준역은 모두 형식적 일치 번역으로 약 2세기 동안 다른 영어성경 위에 우뚝 섰다. 19세기가 시작될 무렵 수많은 그리스어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발굴되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고대세계의 생활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신약

문헌이 당시 일반인들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대의 일상어로 성경을 옮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그 대표적인 역본은 다음과 같다. 20세기 신약성경(Twentieth Century New Testament, 1901-1904년)과 웨이마우드 현대어 신약성경(Weymouth's New Testament in Modern Speech, 1903년)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번역한 성경은 또한 어린이를 포함한 독자들을 고려한 역본들이다. 모펫역(1913, 1925년)과 스미드-굴스피드역(1923, 1927년)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자유로운 번역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글을 쓰려면 누구든 “자유로운” 문체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칠십인역의 몇몇 책도 자유로운 번역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언급한 역본들이 이러한 원칙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이들 역본은 60년대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뜻을 고려한 여러 역본의 선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새로운 동기로?

1952년부터 1990년까지, 곧 개정표준역(RSV)이 처음 출판되고 신개정표준역(NRSV)이 나올 때까지, 27권의 구약 영어역본과 28권의 신약 영어역본이 나왔다. 새로운 역본이 어떤 동기로 나오게 될지 짐어보는 이 글에서는 아래의 몇 역본만 뽑아 언급하기로 한다.

5.1. 개정표준역(RSV, 1952년)

- 매우 문자적이면서 가능한 한 제임스왕역에 가깝게 하려고 한 미국표준역(ASV)의 개정본.

- 제2판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본문 제3판을 사용함.

- 특정한 구절에서 논란을 빚기도 함. 골 1:4의 경우 제임스왕역은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심지어 죄를 용서 받은”(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표준역은 “그의 피를 통하여”(through his blood)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보다 더 오래된 사본들에 이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 확대된 외경까지 포함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그리고 정교회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한 교회일치 번역임. 곧 외경 가운데에는 제3, 제4 마카베오서와 시편 151편도 들어 있음.

새 개정표준역(NRSV, 1990년)

개정표준역을 개정하려는 주요 요인은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어 성서학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번역하려고 하였다. 고대 가부장제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는 옛 말투나 남성중심의 말은 없애려고 하였다.

새로운 쿵란 사본과 요세푸스의 지지를 따라 사무엘상 10장 끝에 3-4절에 해당하는 구절을 덧붙이기도 하였다.⁴⁾

새 개정표준역은 영국판도 있는데, 이 판본은 미국영어의 투를 버리고 영국영어의 철자와 문법과 종지법과 낱말들을 달리 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 12:1에서 미국영어의 “곡식밭”(grain fields)을 영국영어의 “옥수수밭”(cornfields)로, 또 사 11:1에서 “이새의 그루터기”(stump of Jesse)를 “이새의 줄기”(stock of Jesse)로 바꾼 것이다.

5.2. 예루살렘 성경(JB, 1996년)

예루살렘 성서는 방대한 양의 주가 달린 프랑스어역으로 시작한다. 나중에

4) 다음은 개정표준역에서 새개정표준역으로 바뀐 예이다.

*표현을 분명하게 바꾼 예(출 11:8) -

“그리고 그(모세)는 매우 화가 나서 바로에게서 나갔다”(And he (Moses) went out from Pharaoh in hot anger) (RSV)

“그리고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바로를 떠났다”(And in hot anger he left Pharaoh)(NRSV)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 바꾼 예(신 29:5) -

“너의 신발이 너의 다리를 닳게 하지 않았다”(Your sandals have not worn off your feet)(RSV)

“다리에 신은 신발이 닳지 않았다”(The sandals on your feet have not worn out)(NRSV)

*모호한 표현을 없앤 예(시 122:5) -

“거기에 심판의 자리가 놓였다”(There thrones for judgment were set)(RSV)

“거기에 심판의 자리를 세웠다”(For there the thrones for judgment were set up)(NRSV)

*‘남자’(man) 또는 ‘남자들’(men)이란 표현을 피한 예(롬 16:7) -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이름 있는 남자들이다”([Andronicus and Junias] are men of note among the apostles)(RSV)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다”(Andronicus and Junia] are prominent among the apostles)(NRSV)

이 프랑스어 역본을 영어로 번역하였으나, 다시 편집인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본문과 일일이 대조하여 이 고대본문과 일치시키고자 고쳤다. 이 역본이 원어에서 영어로 옮긴 최초의 로마 가톨릭성서이다. 이는 곧 제롬의 불가타역 전통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 또한 사해 두루마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최초의 역본이기도 하다. 번역자들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또한 신학적 사고를 깊이 하고자 한 역본이다. 먼저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번역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옛 본문을 옮겼다. 그리고 “한 종파의 견해만을 반영하거나 피상적인 번역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방대한 양의 주를 달았다.

메츠거(Metger 2001)는 예루살렘 성서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면서 번역과 주에 반영되어 있는 학문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성서학의 틈을 거의 줄였다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서는 요즘 말로 옮긴 성서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표기하였다. 콜리앗을 팔레스틴의 “돌격 부대요원”(shock-troopers)(삼상 17:4)으로 표현한다. 사 7:14에서 “소녀”(maiden)로 옮기면서 주에는 이런 설명을 덧붙인다. “그리스어 역본에는 ‘그 처녀’로 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본문의 알마는 젊은 아가씨 또는 최근에 결혼한 젊은 여인이란 뜻이다.” 요일 5:7b-8의 경우, 삼위일체 언급은 아마도 라틴어 불가타역의 열등한 사본들에 스며든 주일 것으로 설명한다.

새예루살렘성경(NJB, 1985년)

새예루살렘성서에서 바뀐 것은 남성 중심의 언어를 줄인 것이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리킬 경우에 그렇게 바꾸었다.

예루살렘 성서가 요즘 말로 되었다는 혹평 때문에 새예루살렘성서는 이 점을 바꾸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몇 예를 보기로 하자.

마 5:3-11 (JB) “행복한”(happy)

(NJB) “복된”(blessed)

요 16:20 (JB) “내가 정말 엄숙히 너희에게 말한다”

(I tell you most solemnly)

(NJB)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In all truth I tell you)

5.3.새미국성경(NAB, 1970년)

처음에는 라틴어 불가타역을 옮긴 역본을 번역하였으나, 1944년 번역 방향이 바뀌어 원어에서 번역하기로 하였다. 현대 미국영어 표현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구약의 경우 번역자들은 사무엘 상하에서 마소라 본문을 여러 번 벗어났는데, 이는 마소라 본문을 콤팩 제4동굴에서 나온 히브리어 사본에 따라 고쳐 읽은 것이다.

사 7:14에서는 “처녀”라고 옮기면서 아주 긴 주를 달았다.

새미국성경(NAB)의 신약 개정판(1986년)

새미국성경이 나온 지 8년이 지나 신약을 철저하게 개정하자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유는 성서학이 발전하고 사용하는 말이 바뀐 때문이다. 그 결과 좀 더 문자적인 번역이 나왔다. 원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성까지 포괄하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5.4. 새영어성경(NEB, 1970년)

영국 개신교회가 개정표준역을 개정하려고 할 무렵 1611년판 제임스왕역의 전통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번역을 낼 계획이 세워졌다. 그 결과 새영어성경이 나온 것이다.

번역자들은 이전 번역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대로 원어에서 직접 자연스러운 현대 말과 구조와 흐름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thou*로 표기한 것이다. 예를 보기로 하자.

살전 4:13 “죽음에서 잠자는 사람들”(those who sleep in *death*)⁵⁾

골 1:22 “살과 뼈로 된 그의 몸으로”(in his body of *flesh and blood*)

마 18:10 “보호 천사”(guardian *angel*)

고전 5:9 “여러분은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you must have *nothing to do with loose-livers*)

요 6:60 “이는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This is *more than we can stomach*)

개정영어성경(REB, 1989년)

5) 이탤릭은 영어 원문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

개정자들이 어떤 의도로 작업을 했는지를 밝힌 서문에 영어 문체가 예전용으로 사용할 때 막힘이 없이 적절하도록 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예배자들이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또한 밝히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에서 thou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포괄언어를 채택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좀 보수적으로 바뀌긴 하였으나 특이한 번역은 채택하지 않았다. 예를 보기로 하자.

수 15:18

(NEB) “그는 바람을 갈랐다”(she broke wind)

(REB) “그는 내렸다”(she dismounted)

겔 21:7

(NEB) “온 남자들의 무릎이 오줌을 싼 것이다”(all men’s knees run with urine)

(REB) “온 무릎이 물이 될 것이다”(All knees will turn to water)

고전 5:9

(NEB)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 이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 loose-livers)

(REB)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 those who are sexually immoral)

5.5. 새국제역(NIV, 1978년)

개정표준역이 혹평을 받은 뒤 보수적인 진영의 후원으로 성서가 번역되어 나온다. 그 예로는 풀이성경(Amplified Bible, 1965년), 현대어성경(Modern Language Bible, 1969년), 새미국표준역(NASB, 1971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역본도 신국제역만큼 보수적인 개신교회의 표준역본으로 받아들인 것은 없었다. 신국제역은 보수 신학과 정책을 잘 보여주는 영어 역본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국제역은 교파를 초월하여 폭넓게 발행되고 있다. 서문을 읽어보면 13교파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자들은 성경의 깊은 관점을 강조한다. 곧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표기할 때가 한 예이다. 공관복음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Mary Magdalene)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a)로 되어 있다. 시간대를 표기하는데 그리스어 표현대로 “제3시”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아침 아홉시”로 표기한다.

신국제역은 형식적 일치의 경향을 지키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뜻을 따라 자유롭게 번역한 역본도 아니다.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 낱말이나 표현의 경우에는 원문의 낱말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몇몇 예를 보기로 하자.

막 1:4 “회개의 세례”(baptism of repentance)

마 3:15 “의로움”(righteousness)

롬 4:25 “칭의”(justification)

롬 9:11 “택하심”(election)

새 국제 독자역(NIRV, 1996년)

이 역본은 신국제역을 펴낸 존더반 출판사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도 신국제역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낸 역본이다. 번역위원회는 성포괄언어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아 구성되었는데 성경전서는 1995년에 나왔다.

1996년 쉽게 풀은 신국제역이 영국에서는 “포괄언어를 사용한 일반용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Popular Edition, Inclusive Languag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판본이 판권문제로 판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존더반 출판사의 소송 의뢰인 측은 매우 격렬하게 대응하였다. 신국제역과 이 판본들을 비교해보자.

창 1:27

(NIV)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NIVI)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God created human beings in his likeness)

(NIRV)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God created man in his own likeness)

잠 5:21

(NIV) “사람의 길은 주님의 눈 안에 있다”(A man’s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NIVI) “너의 길은 주님의 눈 안에 있다”(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NIRV) “주님은 사람의 길을 바라보고 계신다”(The Lord watches a man’s ways)

요 11:50

(NIV)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NIVI)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person die for the people)

(NIRV) “하나가 여러 사람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이 낫다”

(It is better for you if one dies for the people)

5.6. 새미국표준성경(NASB, 1971년)

그리스도교의 교육과 복음전파와 성서번역을 증진하려고 1942년에 설립된 로크만 재단은 1959년 새로운 성서번역 사업에 착수한다. 이 즈음에는 1901년에 나온 미국표준역(ASV)의 판권이 끝나갈 때였다. 미국표준역을 그 대본으로 삼았다.

개정자들은 제네바성서(Geneva Bible, 1560년)이나 제임스왕역(1611년)의 전통적인 판형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곧 절마다 새로운 행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단락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두꺼운 숫자나 글자로 인쇄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바뀐다는 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미국표준역과는 다르게 여호와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LORD)이라고 표기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언제나 대문자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5.7. 유대인 번역

“마소라 본문을 따른 성서”(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Masoretic Text)는 미국유대인출판사가 1917년에 펴낸 역본으로, 제임스왕역이나 영어개역과 아주 가까운 성경이다. 타낙(Tanakh)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번역이 1962년에 완성되었다. 문체는 매우 문자적이다.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는 “주님”(LORD)

으로 표기하였다. 히브리어의 뜻이 불분명한 곳이라고 190회나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카시러신약(Heinz W. Cassirer's New Testament, 1989년)과 스텐 유대인성경(David H. Stern's Complete Jewish Bible, 1998년)은 성경의 유대성을 강조하는 역본들이다. 두 역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이 작업에 착수하였다. 스텐의 구약번역은 번역과 설명풀이의 중간쯤 위치하는 역본이다.

6. 뜻에 초점을 둔 역본들

6.1. 기본영어성경(Basic English Bible, 1949년)

기본영어(Basic English)는 단순한 형태의 영어를 말한다. 몇몇 규칙을 따라 850 개의 영어 낱말만 사용하여도 어떤 표현이든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영어성경은 바로 이 원칙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하지만 재료와 같은 말은 이 원칙으로 다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본에서 사용된 낱말의 수는 1000개로 늘어났다.

6.2. 필립스역(J. B. Philips' Version, 1958년)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읽기 쉽게 옮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 필립스는 본문을 자유롭게 설명하여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흠이 좀 있다면 몇 구절에서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을 옮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1966년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본문에 따라 본문결정을 타협하기도 하였다. 필립스역은 그리스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역본에 들어 있는 여러 이야기투 표현을 없앴다. 곧 “너희가 깨달으리라고 나는 확신하므로”(as I am sure you realize)나 “너희가 지금 알아야만 한다”(you must know now)와 같은 표현을 말한다.

6.3. 복음성경(GNB, 1976년)

1961년 미국성서공회(ABS)는 편지 한 장을 받았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인 읽을 수 있는 번역을 내달라는 편지였다. 그래서 미국성서공회는 일상 미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주요 번역자는 로버트 브레처(Robert Bratcher)이다. 그는 번역 초고를 미국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BFBS)의 자문위원들에게 보냈다.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

이라고 이름 붙인 신약이 1966년에 나왔다. 많은 학자들의 도움으로 구약은 1976년에 그리고 외경이 포함된 전서는 1979년에 나왔다. 1976년 판은 남성중심의 언어를 피하려고 노력한 성경이다. 하지만 성차별 언어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고려한 판본은 1992년에 나왔다.

복음성경은 내용의 동등성이라는 원칙을 채택한 역본이다. 성경 속의 관습과 개념은 현대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었다. 몇 예를 보기로 하자.

시 23:5

“...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anointed my head with oil)

> “영예로운 손님으로 나를 환영하다”(welcomed me as an honored guest)

롬 12:20

“그의 머리에 숯불을 엮다”(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 >

“그가 부끄러움으로 불타게 하다”(make him burn with shame)

삼하 7:16

“그대의 보좌가 영원히 든든할 것이다”(thy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

“너의 왕조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your dynasty will never end)

6.4. 현대영어역(CEV, 1995년)

미국성서공회가 두 번째로 내놓은 현대어 번역이다. 처음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한 성경으로, 사용된 낱말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었다. 현대영어역은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이지만 본문 안에 설명을 길게 붙인 역본은 아니다. 바클레이 뉴먼(Barclay Newman)이 주로 번역하였으며, 이외에도 백여 명의 번역자, 영어 전문가, 성서학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현대영어역은 읽거나 들을 때 복음성경보다 더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경을 읽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듣는데 무리가 없도록 듣기용으로 번역되었다.

신학 용어는 각 문맥에 맞게 다른 말로 바꾸었다. “비유”(parable)는 “이야기”(story)로, “호산나”는 “후레이”(hooray)로 바꾼 것 등이 그 예이다. “은총”(grace)이란 낱말은 쓰지 않고 여러 말로 바꾸었다. 행 4:33의 “복

된”(blessed), 행 18:27의 “하나님의 친절”(God’s kindness), 갈 2:21의 “받아 마땅치 않은 친절”(underseved kindness)이 그 예이다.

7. 풀어 읊긴 성경

7.1. 생활성경(LB, 1971년)

풀어읊긴 생활성경(The Living Bible, paraphrased)은 출판 역사상 획기적인 반포 기록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성경 판매 부수의 46%를 점할 정도였다. 지난 세기 말까지 전세계 인구의 90%가 사용하는 100개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생활성경은 본디 한 아버지가 그 가족의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성경이다. 그는 매일 출근하면서 45분 동안 타고 가는 기차 안에서 미국표준역을 풀어 읊었다. 케넬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을 엄격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풀어 읊기하고자 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로마서 3:21의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 이르는 길”(way to heaven)로, 롬 5:16의 “칭의”는 “영광스러운 삶”(glorious life)으로, 막 10:17의 “영원한 삶의 풍요로움”은 “하늘에 다다름”(get to heaven)으로, 막 1:1의 “복음”은 “놀라운 이야기”(wonderful story)로 풀어 읊었다.

이 역본을 번역이 아닌 풀어읊긴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암 1:1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NRSV)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가 받은 말씀”

(The words of Amos, who was among the shepherds of Tekoa)

(LB) “아모스는 드고아 마을에 사는 농부였다. 하루종일 그는 언덕배기에 앉아 양떼를 지키며 흩어지지 않게 하였다”

(Amos was a herdsman living in the village of Tekoa. All day long he sat on the hillsides watching the sheep, keeping them from straying.)

새생활역(NLV, 1996년)

생활성경의 개정본이지만 풀어읊긴 성경이 아니고 원어에서 내용의 동등성을 따라 읊긴 번역이다. 이 번역은 중학생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성경으로, 포괄언어를 사용하였다. 풀어읊기지 않고 번역한 이 개정본의 경우를 함께

비교해 본다.

마 7:2

(LB) “그대가 대접한 대로 다른 이가 그대를 대접할 것이다”

(For others will treat you as you treat them.)

(NLT) “그대가 대접한 대로 다른 이가 그대를 대접할 것이다. 다른 이를 판단하는 표준이 무엇이든지, 그대 자신이 그 표준으로 판단받을 것이다.”

(For others will treat you as you treat them. Whatever measure you use in judging others, it will be used to measure how you are judged.)

7.2.메시지(The Message, 신약, 1993년)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메시지 - 현대어 신약”(The Message: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English)는 케넷 테일러의 생활성서가 1970 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것처럼 1990년대에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 역본의 서론에서 피터슨은 그의 목표를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어 신약에 있는 말씨와 리듬과 사건과 생각을 현대인들이 실지로 생각하고 말하는 투로 살려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단지 쉬운 말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원문의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풀어옮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은 아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번역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마 5:41

(NRSV) “어떤 사람이 네게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가라”

(and if anyone forces you to go one mile, go also the second mile.)

(Message) “어떤 사람이 네게서 부당한 이득을 차지하려 한다면, 종의 삶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라. 맞받아치지 말라. 험수하게 살라.”

(If someone takes unfair advantage of you, use the occasion to practice the servant life. No more tit-for-tat. Live generously.)

성서의 문화는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우도록 하는 권리를 가졌을 때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8. 짧은 교리적 설명이 붙어 있는 역본들

8.1. 신세계역(The New World Translation, 1961년)

신세계역은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번역본으로, 번역에 그들의 교리가 스며 있다.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237번 등장한다. 곧 “주님”(kyrios)이란 말을 여호와로 바꾸 바꾼다. 그 예를 보기로 하자.

행 19:20

(NWT) “그래서 힘차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자라고 퍼져나갔다...”

(Thus in a mighty way the word of Jehovah kept growing and prevailing...)

(NRSV)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힘차게 자라나 퍼졌다.”

(So the word of the Lord grew mightily and prevailed.)

요 1:1

(NWT) “맨 처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신이었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a god.)

(NRSV) “맨 처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였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8.2. 그리스도인 공동체 성경(Christian Community Bible, 1988년)

그리스도인 공동체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에서 번역하였다고 서문은 밝히고 있다. 본문 속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나 주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마 16:13-20을 보면 주에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말하고 있다.

9. 종합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역본이 수도 없이 많을까?

특정한 역본을 내놓으려는 결정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상황의 어떤 의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뒤 그 의도가 역본을 통하여 어떻게 관철되는지 또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곧 의도나 동기는 그 상황 속에서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다.

9.1. 필요한 이유

칠십인역이 나온 상황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쓰는 말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새로운 고향에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신들이 말하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싶어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리스테아스 편지에 그 이유가 나온다. 곧 이집트 왕은 자신의 도서관을 채우려고 그리스어로 된 히브리성서 한 권을 갖고 싶어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학자들은 다른 이유로 칠십인역이 나온 배경을 설명한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성서가 그리스어역을 통하여 라틴어로 번역되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옛 라틴어역은 칠십인역을 다시 번역한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이중번역의 시초이다. 로마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된 중역 성경이 많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곧 칠십인역의 옛 라틴어역은 영어(위클리프역), 독일어, 이탈리아어, 카탈로니아어, 체코어, 프랑스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위클리프역이 처음 나온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위클리프는 생각하였다. 성경이 교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수 세기가 지나면서 역본이 필요한 이유가 심하게 바뀌었다. 역본이 하나도 없는 언어로 성경을 내놓으려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어느 특정한 계층이 읽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한다. 예를 들어 신앙 전통이 다른 이들(유대인, 로마 가톨릭교인)을 위해서 번역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향에 따라 번역(신국체역)하기도 한다. 또는 성경을 어떻게 읽힐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여 내놓은 성경(현대영어역)이 나오기도 한다. 특정한 계층을 위한 성경이 출판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목회자, 여성, 학생, 유색인종 등을 위한 역본들을 말한다. 같은 성서본문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이 선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9.2.번역 저본

왜 이렇게 역본이 수도 없이 많을까? 다른 번역 저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본이 나오는 것이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성서를 옮긴 것이지만 칠십인역 역시 다른 역본의 저본으로 쓰이기도 한다. 옛 라틴어역이 칠십인역을 저본으로 사용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제롬의 불가타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옮긴 것이다. 영어역본이 틴데일 시대에 이미 있었지만 틴데일은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좀더 나은 번역을 내놓고자 하였다.

신약의 경우, 어떤 저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기도 한다. 물론 유명한 예가 제임스왕역(KJV)과 새제임스왕역(NKJV)이다. 이 둘은 공인본문을 옮긴 역본들이다. 영어개역(RV, 1885년)과 미국표준역(ASV, 1901년)은 보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번역을 내놓겠다는 계획에서 나온 역본들이다. 저본으로 사용된 사본들은 물론 1881년판 웨스트코트-호르트(Westcott-Hort) 본문이다. 그리스어 비평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비평본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4판과 네슬-알란드 제27판이다.

9.3. 어떤 번역을?

칠십인역에는 두 종류의 번역이 있다. 원문의 형식을 따른 번역과 뜻을 따른 번역을 말한다. 초기에 나온 여러 영어번역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위클리프는 처음에는 문자적인 번역을 내놓으려 했으나 나중에는 좀더 자유스러운 번역을 내놓기도 했다. 틴데일 역시 자유로운 번역을 내놓았다. 뒤이어 나오는 영어역본들 특별히 제임스왕역의 대본이었던 감독성경은 1611년판 제임스왕역과 비교해볼 때 무척 문자적이다. 이러한 경향을 견지하면서도 제임스왕역의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제임스왕역 다음에 나오는 영어역본들은 매우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 거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식으로 번역한 역본들도 있다. 복음성경(GNB)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놓은 역본이다.

9.4. 또 다른 새로운 특징

새로운 특징을 띤 새로운 번역이 등장한다. 틴데일역은 처음으로 원어를 옮긴 번역이다. 카버데일역은 처음으로 나온 성경전서이다. 큰 성경은 루터가 매긴 책의 순서를 따른 첫 번역이다. 곧 이전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제네바 성

경은 칼빈주의의 색채를 띤 주를 붙인 역본이긴 하지만 지도, 목록, 각 장 요약
을 붙여서 독자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한 역본이다.

9.5. 더 나아진 번역

처음 그리스도교 교회는 흠이 있다고 생각하여 칠십인역의 다니엘서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기원후 2세기에 나온 데오도시온역의 다니엘서를 읽었
다. 제롬은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한 새번역을 내놓으라고 다마스스 교황의 명을
받는다. 이 번역이 바로 라틴어 불가타역인데 이 당시에 수많은 라틴어 번역이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제임스왕역이 나뉘어진 그
리스도교 공동체를 하나가 되도록 했지만, 이 역본은 감독성서를 고친 개정본이
다.

번역에 사용되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말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
다. 동시에 성서학과 번역 원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번역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개정은 불가피하다. 성서번역사를 훑어보기만 해도 옛 번역을 고
쳐 새 번역이 나온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50년간의 영어성서번역사를 보
아도 분명해지는 사실이다. 개정표준역(RSV), 새미국표준성서(NASB), 예루살렘
성서(JB), 새미국성서경(NAB), 새영어성경(NEB), 새국제역(NIV), 생활성경(LB),
복음성경(GNB), 현대영어역(CEV)이 나왔지만 각각 개정본과 좀 낮게 고친 교
정본이 이어서 나왔다.

9.6. 다양한 독자층

앞 항목에서 개정에 대하여 말했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독자층을 말하지 않
을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다양한 역본이 다양한 후원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출판되었다. 곧 신국제역(NIV)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새
미국성서(NAB)와 예루살렘성서(JB)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인들에게, 또 문자적
인 번역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새영어성경(NEB)이, 읽는 것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현대영어역(CEV)이 좋을 것이다.

10.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

10.1.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지난 30여 년 동안 네 개의 성경전서 개정본(RSV, NEB, JB, LB)과 두 개의 신약 개정본이 나왔다. 이러한 개정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번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개정본을 읽어 보면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그러한 급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⁶⁾ 많이 고치기보다는 메시지가 잘 이해되도록 약간 고치는 정도이다.

시 86:11

(RSV) “님의 이름을 두려워 하도록 내 마음을 묶으소서”(Unite my heart to fear thy name.)

(NRSV) “님의 이름을 존송하도록 나뉘지 않은 마음을 내게 주소서”
(Give me an undivided heart to revere your name.)

창 1:27

(NIV)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NIRV)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God created man in his own likeness.)

지역에 따라 쓰는 말이 달라서 판본을 달리 내는 경우도 있다. 새개정표준역(NRSV)의 경우 미국판과 영국판이 따로 나왔다. 복음성경(GNB)도 두 판이 있으며, 현대영어역(CEV)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따로 있다.

10.2. 독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번역을 계속 고쳐왔다는 말은 성경 출판사나 번역진은 성서 독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은 때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풀어옴긴 성경인 생활성경(LB)이 새로운 번역인 새생활역(NLT)으로 바뀐 것이 그 예이다. 1985년 이후에 나온 성경이나 개정본은 성차별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괄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이 급격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번역의 성격상, 옛 것을 보존하려는 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전 번역을 좀 고친 것이 개정본이다. 개정영어성경(REB)은 새영어성경(NEB)과 비교하여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새미국성경(NAB)의 신약 개정판은 더 문자적으

6) “주님”(LORD)을 “여호와”로 고친다거나, “피”라는 말이 없는 번역판에 다시 그 말을 집어넣는 경우를 말한다.

로 바뀌었다. 복음성경(GNT)은 개정본이 아니라고 해도 1979년판은 “피”(blood)라는 말을 생략한 이전 판을 다시 고치기도 하였다. 1992년판은 많이 바꾸었는데 특히 포괄언어를 채택하여 내놓았다.

번역을 개정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이다.

새로운 번역이든 개정본이든 번역을 내놓는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때로 새로운 번역을 단순히 선교 차원에서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목적으로 내놓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다. 시장의 수요에 민감한 성서 번역본이 있는가? “후원”이란 말이 아직도 유효한가, 차라리 “고객 의뢰”란 말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장사를 목적으로 번역을 내놓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는 본문이 하는 말을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전달하려는 번역은 없는가?

(번역:이환진)

역본 약어표

- 미국표준역(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 현대영어역(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 복음성경(GNB, GNT) Good News Bible, Good News Translation
- 예루살렘성경(JB) Jerusalem Bible
- 제임스왕역(KJV) King James Version
- 생활성경(LB) Living Bible
- 칠십인역(LXX) Septuaginta
- 새 미국성경(NAB) New American Bible
- 새 미국표준성경(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새 국제역(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 새 국제독자역(NIRV)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
- 새 예루살렘성경(NJB) New Jerusalem Bible
- 새 제임스왕역(NKJV) New King James Version
- 새 생활역(NLT) New Living Translation
- 새 개정표준역(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개정영어성경(REB) Revised English Bible
- 개정표준역(RSV) Revised Standard Version
- 영어개역(RV) Revised Version